

뉴스편역의 번역규범 - 텍스트 규범을 중심으로

송연석
(한국의국어대)

1. 서론

2010년 한국신문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인터넷 서비스 중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16.4%). 뉴스는 전체 인터넷 이용시간 중에서도 주간 평균 49.1분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체 인터넷 페이지뷰에서도 뉴스가 전자상거래(15%), 포털커뮤니티(14.4%)에 이어 3위(12.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체별 시사정보 의존도에서도 인터넷 뉴스가 81.6%로 1위였고 그 뒤를 일간신문(62.6%), 지상파 TV뉴스(62.9%)가 따르는 등 뉴스 이용이 이체는 완전히 인터넷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모바일 기기 이용이 급증하면서 뉴스 이용행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및 모바일 뉴스는 매체의 특성상 기사분량에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한국의 기사문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추세다(박재영 2006). 이는 뉴스 번역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뉴스번역 연구는 뉴스위크나 CNN 등의 전역(全譯)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영어학습이 아닌 순수 정보습득의 목적으로 일반 독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의 뉴스번역은 외신 인용 보도의 형태를 취하는 편역(trans-editing)이다. 편역은 편집(editing)과 번역(translation)을 합친 말로, 1989년 스테팅(Stetting 1989)이 처음 도입한 용어다. 그러나 이후 스테팅 자신은 물론 서구의 다른 번역학자들 사이에서도 뉴스편역 연구는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중국, 대만을 비롯한 비서구권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Cheng 2011, Chen 2009/2011; Lu 2011; 강수정 2011). 이는 국제뉴스의 생산이 서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국제뉴스의 소비의 축을 담당하는 비대칭적 구조에 기인한다(김성해 등 2011). 국제뉴스 소비를 위한 뉴스번역에서는 TT독자를 위한 번역자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전역과 편역을 가르는 기준을 흔히 생각하는 ST 내용, 형식 및 전달의 완전성이 아닌 번역(편)역자 개입 정도의 차이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무엇이 번역이고 무엇이 편역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투리(1995)는 번역의 개념을 다음 세 가지 가정을 빌어 설명한 바 있다. (1) ST보다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앞서 나온 다른 언어로 된 ST가 존재한다. (2) ST에서 이전되어 TT와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특징들이 있다. (3) ST와 TT가 문화적, 언어적 경계를 넘어 “서로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accountable relationships)(ibid. 33-35)”로 묶여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뉴스편역은 순수 번역(translation proper)은 아닐지라도 엄연한 번역의 한 유형이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언론 기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연구 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번역학에서 편역은 연구 자체가 희귀하고 규범에 관한 연구 또한 출판번역(이상원 2004/2006)이나 문학번역(박옥수 2010/2012)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동안 번역학과 언론학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뉴스편역 연구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환기시키고 뉴스편역 연구의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사문 텍스트를 분석해 이에 작동하는 번역규범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규범과 번역

번역에는 출발어 규범과 도착어 규범 중 어느 쪽을 따를지 선택이 따르게 마련이다. 투리는 이를 1차적 규범(initial norm)으로 정의하고, 출발어 규범을 지향할 경우 ‘충분성(adequacy)’을, 도착어 규범을 지향할 경우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을 충족시키는 번역물이 생산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기준을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적용해보면, 영어→한국어 뉴스번역은 대체로 수용 가능한 번역을 지향하고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TT규범에 맞추기 위한 번역자의 개입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ang 2007/2010; Kim 2003a/2003b; 이미경 2011; 강지혜 2008a/2008b). 번역은 ST에 대한 과감한 편집을 동반하는 작업인 만큼 특히 수용가능성을 지향하는 규범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리의 번역규범은 다시, 번역 정책과 중역 허용 등 ST 선정 단계에 적용되는 예비규범(preliminary norm)과 번역된 내용 및 형식의 완전성과 생략, 추가, 순서변경 같은 텍스트 분할(textual segmentation) 등 실제 번역 단계에 적용되는 실행규범(operational norm)으로 분류되는데, 번역은 편집과정이 번역된 내용 및 형식의 완전성에 영향을 끼치고 번역자의 주관에 따라 텍스트 분할 양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실행규범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투리에 따르면 규범은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실제 번역에서는 충분성과 수용가능성 양 극단 사이에서 타협 및 조합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며(ibid. 54-57), 등가의 개념은 번역규범에 의해 결정된다(Hermans 1996: 25). 이 점에서 번역의 규범을 밝히는 작업은 순수번역(translation proper) 위주인 번역학에서 번역이 설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체스터맨(Chesterman 1997)은 다른 각도에서 번역규범을 제시했는데 ‘기대규범(expectancy norm)’과 ‘직업규범(professional norm)’이다. 먼저 ‘기대규범’이란 TT독자들이 번역물에 갖는 기대로, 예컨대 ‘외신보도내용을 번역한 기사는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 독자의 기대다. 그는 기대규범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TT문화권에서 우세한 번역 전통, 유사 병렬텍스

트의 형식, 경제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권력 관계 등을 꼽았는데, 이는 전역과 차별화되는 편역의 규범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한국에서 우세한 번역 전통인 전역에서는 TT언어인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규범에 맞추기 위한 어휘 등 미시적 차원의 조정은 이뤄져도 ST 기사의 형식과 구조를 깨뜨리지는 않는데 비해, 편역에서는 ST의 거시적 층위에 까지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물이 유사 병렬텍스트인 일반 기사문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언론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국내 뉴스제작이 정부와의 관계(남재일 2006), 언론계의 구조적 요인(손영준 2004) 등 언론사 안팎으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기관, 동일한 직업군에서 행해지는 뉴스편역의 규범 연구에는 체스터맨의 기대규범이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규범이 주로 번역결과물을 둘러싼 규범이라면 ‘직업규범’은 번역과정을 지배하는 규범으로, 번역자로서의 능력(competence)과 전문성(professionalism)이 이에 해당된다. 번역자의 능력과 전문성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줌으로써 존재하게 되지만 그들 역시 또 다른 타인들에게 판단력을 인정받는 것이란 점에서 간주관적 개념이며(ibid. 67), 따라서 편역의 행위주체인 기자의 번역자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직업규범은 책무규범(accountability norm), 의사소통규범(communicative norm), 관계규범(relation norm)의 지배를 받는데, 책무규범이란 원저자, 의뢰인, 번역자, 예상독자, 기타 관련자들이 요구하는 성실함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윤리적 규범이고, 의사소통 규범은 상황적 요구에 따라 모든 관련자간의 의사소통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규범이며, 마지막으로 관계규범은 ST와 TT간 유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범으로, 편역과 특히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편역자는 첫째, ST를 거짓 없이 성실하게 보도해야 하는 책무규범, 둘째, ST분량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독자에게 ST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의사소통규범, 셋째, ST와 TT내용의 유사성을 보전해야 하는 관계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2.2 기사문의 기본 구조와 텍스트 개입

기사문은 표제-리드-본문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표제는 최소한의 어휘로 기사를 요약해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Reah 2002; Baskette, Sissors and Brooks 1986) 본문과는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갖는다. 리드는 도입부 첫 1-2 문장으로, 역피라미드 구조 기사인 경우 리드에서 6하 원칙에 따라 기사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게 되며 그 이하 단락들은 “무엇을, 어떻게, 왜”를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역할을 한다(Rich 2000: 35). 독자들은 표제와 리드만으로 기사의 요지를 파악하고 더 읽어 내려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리드에 들어가는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방식이 특히 중요하다.

기사문은 리드와 본문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크게 두괄식에 해당하는 역피라미드형, 미괄식에 해당하는 피라미드형, 둘을 섞은 혼합형 등으로 분류되는데¹⁾ 역피라미드 구조는 중요 정보를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편집을 용이하게 하고 독자 입장에서는 앞부분만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두드러진 사실만 피상적으로 전달하고 독자에게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관점을 규정해버리며 심층적인 보도를 막는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재영, 이완수 2008a/2008b; 유선영, 이오현 2001). 그런데 국내 기사문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신문사를 막론하고 역피라미드 구조에 매몰되어 있다”(박재영, 이완수 2008b: 114)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역피라미드 구조에 치중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피라미드형이나 혼합형인 ST가 TT에서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도 편역의 텍스트 규범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뉴스편역이 ST인 기사문에 대한 편집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편역자의 텍스트 개입 양상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뉴스번역과 뉴스편역을 같은 개념으로 간주한 비엘사와 바스넷(Bielsa and Bassnet 2009)은 뉴스번역의 주 목적이 “독자들에게 정보를 빠르고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ibid. 63)이라며 뉴스번역자들에게 요구되는 텍스트 개입의 유형을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한다.

1) 리드에 짝막한 에피소드가 제시된 뒤 바로 역피라미드 구조로 넘어가는 ‘변형 역피라미드형’을 따로 분류하기도 하나 이 역시 역피라미드 구조로 간주된다(박재영 2006).

1. 표제와 리드 변형: 목표 독자의 요구 혹은 발행요건에 맞추기 위해 교체
2. 불필요한 정보 제거: 목표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지리적, 문화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독자에게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인 경우 생략
3. 중요 배경정보 추가: 목표 독자가 모를 만한 배경 정보 추가
4. 단락 순서 변경: 정보의 관련성 및 발행 스타일로 인한 순서변경
5. 정보 요약: 지면제약으로 인해, 목표 독자에게 더 이상 관련성 없는 긴 단락을 줄일 때 사용

이들은 목표 독자들에게 대한 뉴스의 관련성과 배경지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인해 이런 변형이 정당화된다면, 번역된 버전이 목표 독자와 해당 발행기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텍스트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다 (ibid. 64).

후지이(Fujii 1988)는 이 같은 텍스트 개입을 게이트키퍼 관점에서 분석해, 뉴스번역자들이 메시지의 분량 조절, 변형, 교체, 재구성 등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는데, 비엘사와 바스넷이 제시한 개입 유형과 대동소이하다. 허스티(Hursti 2001)는 편집을 ST 언어나 구조에 대한 삭제, 추가, 대체, 재구성 등 “텍스트를 수술하는” 뉴스생산과정으로, 번역은 TT 문화권에서 뉴스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내용에 대한 번역을 포함하는 뉴스생산 과정으로 설명하고, 편역에서는 편집과 번역이 중요도에서 대등한 관계이며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고 강조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뉴스편역의 텍스트 규범을 밝히기 위해서는 표제-리드-본문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개입과, 본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개입을 함께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분석방법

3.1 표집 방법

분석에 사용된 텍스트는 인터넷에 게재된 뉴욕타임스 편역 기사(TT)와 그 원문에 해당되는 뉴욕타임스 기사(ST) 30쌍으로, 표집 대상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30개월이다. 뉴욕타임스를 선정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신문으로서 국내 언론매체에서 자주 인용하는 신문이며 언론학과 언어학 등 미디어연구에서도 분석대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외신 편역 기사는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국제, 사회, IT 등 다양한 뉴스주제로 분류되어 해당 섹션에 게재되고 있는데, 표제에 NYT(뉴욕타임스), WSJ(월스트리트저널) 등 약어로 표시된 신문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기사와 외견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사목록에서 편역 기사만 가려 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상세검색 기능²⁾을 이용해 해당 기간 동안 표제에 NYT가 들어가는 기사들을 수집했다.

일반적으로 기사문 분석은 매주 특정 요일을 지정해 분석 대상을 추출한다거나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주제어 검색을 이용해 해당 기사만을 수집해 분석하는 등의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뉴스편역, 특히 텍스트 규범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 본 연구에서 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뉴스편역이란 애초에 번역할 대상, 즉 한국 언론의 시각에서 뉴스거리가 될 만한 외신기사가 존재해야 하는데, 매일 제작되어 나오는 일반 기사와 달리 보도 간격에 규칙성이 없다는 점, 둘째, 화제성이 큰 사건이 외신에 보도됐을 경우 한동안 그와 관련해 집중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데이터에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김정일 사망이나 삼성-애플 소송처럼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일정 기간 관련 보도의 빈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독자들이 이미 전후 맥락에 익숙한 상황에서 이뤄지

2) 네이버는 검색에 특화된 사이트로, 날짜별, 언론사별, 제목/기사별 등 다양한 조건검색이 가능하다. 한국언론재단의 KINDS나 언론사 자체 검색 서비스로는 영한뉴스편역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가 검색되어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검색되며 검색기능 자체가 네이버에 훨씬 뒤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는 번역 기사들이 텍스트 규범적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선택하거나 단기간 집중 표집하는 방식보다는 표본추출 대상 기간을 넓게 잡고 각 표본 간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되 특정 요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보도된 기사 중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흔히 통계적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로 알려진 표본 30개를 수집하되, 표집 대상 기간인 30개월을 월단위로 나누고 월별 한 꼭지씩을 무작위 추출했다. 방법은 (1) 네이버 뉴스상세검색 기능을 이용해 2010.3.1부터 2012.08.31까지 월별 NYT 번역 기사를 검색해 그 달의 기사수를 파악한 뒤 (2) 기사마다 날짜순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3) 엑셀 랜덤함수(randbetween)³⁾를 이용해 난수를 추출한 뒤 그 숫자에 해당하는 번호의 기사를 그 달의 표본으로 선정한 뒤, (4) 1-3의 과정을 30회 반복하는 식으로 TT 표본 30개를 수집하고 (5) 각 TT의 게재일을 힌트로 NYT 사이트에서 ST를 찾아 짝을 맞췄다. 전체 NYT 번역 기사 수는 1,662개였고, 월별 기사의 수는 최소 30개에서 최대 98개였으며, 평균값은 55.4, 중앙값은 52.5였다.

3.2 분석 항목

전술했듯이 국내 기사문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표제-리드-본문으로, 기사의 핵심이 서두에 오는 역피라미드 구조다. 이때 번역자의 관점이 ST 작성자의 관점과 늘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번역자가 ST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재단해 이 역피라미드 구조에 끼워 맞추는지 형식적인 개입 양상에 역점을 두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비엘사와 바스넷이 제시한 다섯 가지 텍스트 개입 유형, 즉 표제 및 리드의 변경, 불필요한 정보 삭제, 배경정보 추가, 단락 순서변경, 정보 요약 등 기본적인 항목으로 분석하되, 이런 행위들이 번역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며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T와 TT를 정성적으로 대조 분석했다.

각 분석항목은 엑셀을 이용해 기사게재일, ST기사 제목, TT기사 제목, ST 전체 단어수, ST에서 번역된 단어수, TT전체 단어수, TT 중 번역부분의 단어

3)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의 숫자를 무작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지정된 범위(1부터 해당 월 기사의 수)의 숫자 내에서 난수가 생성된다.

수, 표제 변이 유형, 부제 유무, 리드 변이 유형, 생략 유형, 추가 유형, 순서변경 유형, 요약 여부 등으로 구분해 코딩했다(분석 사용 기사 목록은 부록 참조).

한국어 텍스트의 분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최소 단위로는 형태소와 단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단어를 측정 기준으로 삼았다. 형태소가 띄어쓰기로 분리되지 않아 측정이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언어학이 아닌 번역학 관점의 텍스트 분석에서 형태소 측정으로 얻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때문이다. 형태소는 “문법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이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고영근, 구분관 2008: 28-30)”로 정의되지만, 분류 기준도 여러 가지고 실제 적용 시 모호한 점이 있다. 가령 “아이가 돌다리를 건넜다” 같은 문장에서 자립형태소인 ‘아이,’ ‘돌,’ ‘다리’는 유효한 측정 단위가 될 수 있지만 의존형태소인 ‘가,’ ‘를,’ ‘건너-,’ ‘-있-,’ ‘-다’ 등을 측정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박약해 보인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분류되는 실질형태소(아이, 돌, 다리, 건너-)와 형식형태소(가, 를, -있-, -다)는 애초에 형식형태소가 그야말로 형식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함을 인정한 분류이기 때문에 의미 전달 작업인 번역에서는 적합한 측정 및 분석의 단위가 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단어 수보다는 전체 텍스트에서 번역된 부분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측정 단위가 형태소든 단어든 측정 시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분석결과

표1은 단어수를 기준으로, ST와 TT에서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1〉 ST-TT에서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

	총 단어수			번역된 단어수			번역 부분의 비중(%)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ST	345	1550	1068	55	497	238	9.9	53.5	23.4
TT	129	382	221	48	372	192	28.4	97.4	85.5

ST인 뉴욕타임스 기사는 가장 짧은 345단어짜리 기사도 A4기준으로 1페이지를 가득 채우지만 TT인 번역기사는 가장 긴 기사가 382단어로 그보다 조금 많은 정도이며, 출력한 기사쪽수를 기준으로 ST의 분량이 TT보다 평균 약 5배 많았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대체로 심도 있는 분석기사 위주고 분량이 많은데 비해 한국 기사들은 분량이 적은 쪽이 표준에 가깝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신명선과 박재영(2004)은 뉴욕타임스 1면 기사를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로 평균 19.5매가 나오지만 조선일보 1면 기사는 200자 원고지로 평균 3.6매에 불과하다며 국내 언론사에서는 “짧은 저널리즘(2008: 128)”이 규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단순 길이만 약 5배 차이로, 본고의 분석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TT에서 번역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5.5%로, 나머지 14.5%는 “NYT에 따르면”이나 “...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등 기자가 첨가한 부분이다. 따라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번역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ST내용 중 TT로 번역된 부분은 23.4%에 불과하다. 번역기사에도 “짧은 저널리즘” 규범이 작동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뉴스편역의 텍스트 규범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ST내용 중 번역되지 않은 나머지 76.6%가 어떤 이유에서 생략 혹은 누락됐는지, 순서가 변경됐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TT내용 중 기자가 첨가한 14.5%는 단순한 인용 표지의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1 표제 및 리드 변이

비엘사와 바스넷이 제시한 텍스트 개입의 첫 번째 유형으로, 변이가 일어난 TT표제수는 16건(53%)이었는데, 유형은 크게 (1) ST의 표제를 그대로 번역하면 배경정보가 부족하므로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본문 인용 등으로 변형한 경우(62%), (2) 독자의 이해를 돕는 목적보다는 특정 관점에서 ST 내용에 대한 기자의 재해석을 TT 표제에 반영한 경우(38%)로 나눌 수 있었다.

<예1>

ST: Will China Listen?

TT: 미 NYT, “중국 환율문제 다자무대서 해결해야” (2010.3.18 폴리뉴스)

예1은 ST표제를 그대로 번역했을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로, TT에서는 ST 본문의 요지를 표제로 사용했다. 가장 일반적이고 당위성을 인정받을 만한 표제 변이 유형이다.

<예2>

ST: Dispute Over Islands Reflects Japanese Fear of China's Rise
 TT: NYT “한-일 영토갈등 美에 불똥” (2012.8.24 동아일보)

예2의 ST는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관한 기사의 표제로, 분쟁의 이면에는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이 숨어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TT는 본문 도중에 언급됐을 뿐인 독도 문제로 초점을 바꾼 뒤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기자의 재해석을 통해 한국 독자와의 관련성을 높였다. 이는 ST를 토대로 했더라도 주제 및 논조가 번역자의 관점에 따라 변형,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외신오역 논란이 종종 도마에 오르는 데도 이러한 재해석이 용인 및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번역의 표제에서만큼은 충분성 대 수용가능성과는 별도로 또 다른 차원의 규범이 작동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번역 기사 표제의 또 한 가지 특이점은 ST에는 없는 부제가 종종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7건(23%)에서 부제가 사용됐는데, 예3처럼 표제만으로는 기사의 요지를 모두 대변할 수 없을 때 본문 중에서 특정 문구를 인용해 넣거나 요약해 넣는 패턴을 보인다. TT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TT중심 규범을 보여주는 사례다.

<예3>

ST: Carmakers Initiating More Recalls Voluntarily
 TT: 토요타 사태 이후 자발적 리콜 증가-NYT
 '자발적 리콜이 충격 최소화' 인식 변화 (2010.8.25 머니투데이)

한편 리드는 30개 모두 예4처럼 간접인용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해당 기사가 번역을 토대로 한 번역 기사임을 알리는 메타 담화(meta-discourse)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4>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줄면서 실직자를 돕는 전국의 직업훈련 센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0.4.10 서울경제)

ST내용의 요지를 객관적으로 전달만 한 리드는 17개(57%), 나머지는 예5와 같이 리드에 편역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5>

*20억달러의 파생상품 손실을 낸 미국 최대 은행 JP모간체이스가 은행의 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하는 불커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감독 당국을 상대로 로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2012.05.13 머니투데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수감과 관련, MB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2011.12.27 뷰스앤뉴스)

ST내용을 객관적으로 요약, 전달해야 할 부분에 편역자의 주관적 판단과 평가가 개입된 사례가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은 표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뉴스편역에 작동하는 또 다른 차원의 규범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ST에서는 역피라미드, 피라미드, 혼합형이 고루 사용된 것에 비해 TT는 모두 역피라미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유사 병렬텍스트인 국내 기사구조 규범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표제 및 리드 변이 양상 (변이된 표제/리드 수(%))

표제 변이 (전체 기사 중 16건, 53%)		리드 변이
독자 이해 증진	기자의 재해석 및 관점 투영	
10 (62%)	6 (38%)	30 (100%)

〈표3〉 기사구조의 변화

	ST	TT
역피라미드형	15 (50%)	30 (100%)
피라미드형	14 (46%)	0 (0%)
혼합형	1 (4%)	0 (0%)

번역 기사 텍스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기사 안에 또 다른 기사(ST)를 담은 일종의 액자구조라는 점이다. 리드는 한결같이 “NYT는 O일(현지시간) … 라고 보도했다”의 간접인용 형식을 따르고 있고 본문 역시 “NYT는/이 신문은 … 라고 전했다/보도했다”식 인용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해당 기사가 번역임을 알려 주는 일종의 메타 담화 표지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4.2 생략, 추가, 순서변경, 요약

생략, 추가, 순서변경, 요약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전략은 불필요한 정보의 생략/삭제로, 30개 TT 모두에서 사용됐으며 가장 적게 사용된 전략은 순서변경으로, 3개에서만 나타났다.

4.2.1 생략 및 추가

생략은 ST와 TT분량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며, 30개 TT 모두에서 사용됐다. 생략은 크게 (1) 한국 독자에 대한 관련성에 비해 지나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일 때 (2) 한국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은 30개 모두에, (2)는 9개에 해당됐는데 그 중 7개가 한국 관련 기사였다. 예6은 한국 독자는 알고 있는 정보라 생략한 예다.

<예6>

ST: The complex, the largest economic link created during a relaxation of inter-Korean tensions almost a decade ago, has continued to operate even after…

TT: … 상황이지만 개성공단은 여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ST에 없는 내용이 TT에 추가된 경우는 총 27건(90%)이며 크게 (1)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정보 추가(12건, 40%) (2) 번역자의 관점 및 해석 추가(10건, 33%) (3) 수사적 목적의 추가(7건, 23%)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예9처럼 (2)와 (3)이 혼합된 경우도 있었다. 비엘사와 바스넷의 텍스트 개입 유형 분류에서 생략 및 추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국내 뉴스편역의 경우 편역자의 주관적 개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7> 독자이해를 위한 배경정보 추가

ST: At one plant... exceeds the inventory in all four of the damaged Fukushima reactors combined, the report notes. / Nearly all American reactors, especially the older ones, have far more spent fuel on hand than was anticipated when they were designed, Mr. Alvarez...

TT: 보고서는 ...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4기를 합한 것보다 많은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는 많은 열이 방출돼 저장밀도가 올라가면 물이 과열될 수 있으며 고장 등으로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같은 방사성 물질 방출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알바레스 연구원은 미국 내 원전 대부분에는 설계 당시 예상치보다 많은 사용 후 핵연료가 저장돼...

<예8> 편역자의 관점 추가

ST: ..controlled by Japan, claimed by China and Taiwan.

TT: ..“일본이 지배하고 중국과 대만이 자신의 영토로 주장한다”고 객관적으로 정리했다.

<예9> 수사적 목적의 추가

ST: ...and the number of fines issued by the pipeline agency fell 40 percent last year compared with 2004...

TT: 또 가스안전 담당기관이 사고를 낸 가스회사에 부과한 벌금이 작년의 경우 지난 2004년보다 40%나 감소할 정도로 벌금 부과 역시 숨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4.2.2 순서변경 및 요약

TT에서 단락 순서가 변경된 기사는 3개(10%)였는데 공통점은 ST가 모두 1,100단어 이상으로 분량이 매우 많고 여러 갈래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점인데, 이럴 때 편역자는 나름의 주제와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단락 순서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예10처럼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도 있어 이 표본만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예10> (번호는 ST에서의 순서)

- (1)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이달 17일 그리스 총선이 끝나고 이르면 7월 중 그리스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 (3) 그리스 지도부에 따르면 1300억 유로 규모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수 및 기타 수입원이 말라가면서 17억 유로 가량 재정이 구멍날 수 있다는 것.
- (4)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 위원회(EC)로 구성된 트로이카가 그리스 총선 결과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려 했던 구제금 10억 유로 지급을 보류한 상태여서 예산 부족분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 (2) 최악의 경우 그리스가 연료, 식품 및 제약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동시에 연금 및 임금 지불 역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은 14개(47%) 기사에서 사용된 전략으로, 모두 리드에서 관찰됐다. “짧은 저널리즘” 규범에 맞춰 본문 요약이 많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본문에서는 요약보다 부분 발췌 후 이어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연한 텍스트 분할을 허용하는 형체 규범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번역 및 요약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인지, 유명 권위자의 원문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번역자의 태도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ST 곳곳을 발췌 번역해 짜깁는 방식은 그만큼 번역자의 개입 소지를 늘린다는 점, 그리고 그 번역자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4는 이상 4가지 주요 전략이 TT에서 사용된 빈도를 전체 기사수 대비 비율로 정리한 것이다. 상세정보 생략 > 요약 > 배경정보 추가 > 번역자 관점 추가 > 알려진 정보 생략 > 수사 > 순서변경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약은 리드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염두에 뒤야 할 듯하다. 또한 기자의 창작기사가 아닌데도 주관적 관점이 추가된 기사가 33%나 된다는 사실은 전역보다 편역이 번역주체의 텍스트 개입에 대해 더 높은 용인성을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4〉 각 전략별 사용빈도 (해당 기사 수(%))

생략		추가			순서 변경	요약
과다 상세정보	알려진 정보	배경정보	번역자 관점	수사		
30(100%)	10(30%)	12(40%)	10(33%)	7(23%)	3(10%)	14(47%)

5.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T의 분량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생략과 요약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요약은 본문이 아닌 리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본문은 요약이 아닌 부분 발췌 후 짜깁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둘째, TT독자의 이해를 위한 배경정보 추가 외에도 ST에 없는 번역자의 관점이 추가돼 병렬텍스트인 일반기사의 성격 을 띠고 있었으나 텍스트상으로는 번역자의 관점인지 ST의 관점인지 구별하기 힘들게 표현되어 있었다.

셋째, 표제는 50% 이상, 리드는 100% 변이가 일어났다. 표제변이는 크게 독자이해와 번역자의 재해석 반영, 두 가지 유형이었고 리드는 모두 간접인용 구조를 사용해 편역을 알리는 메타 담화 표지 역할을 했다.

넷째, ST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기사구조가 TT에서는 모두 역피라미드형으로 수렴돼 국내 일반기사문 규범을 따랐다.

이상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외신보도내용에 대한 국내 뉴스번역 텍스트는 형식적인 면에서 비엘사와 바스넷의 뉴스번역 텍스트 개입 유형을 모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자의 이해를 돕는 수준을 넘어서는 번역자의 주관적 개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ST 내용이 거의 5분의 1로 크게 압축되고 ST에 없는 부제나 ST와는 전혀 다른 리드가 등장해 ST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은 내용과 형식 전달의 완전성에서도 전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번역규범의 틀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투리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서는 형체규범, 특히 텍스트언어학적 규범이 비번역텍스트 생산을 지배하는 규범과 동일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ibid. 59). 투리의 관점에서 규범이 연속선

상에 놓인 상대적 개념이라면 번역의 텍스트규범은 충분성 지향적 번역의 반대편 극단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간접인용이라는 메타 담화의 형식을 빌려 번역자의 관점을 주입한다는 점에서는 투리의 번역규범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규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이 점에서 후속연구의 가능성 및 필요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텍스트규범 규명에 국한된 작업이긴 하지만 실행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느라 생산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즉 생산주체인 번역자와 번역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 등은 배제한 채 번역 결과물만으로 대상을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ST와 TT의 표집 및 대조분석이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표본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기사문이 고도로 표준화·규격화되어 있다고 해도 결과를 일반화해 규범으로 정립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듯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돌아보고 나아가 언론학, 사회학 등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번역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봤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하며, 향후 번역의 생산주체인 번역자 및 소속 기관인 언론사의 이데올로기와 번역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후속 연구로 보완, 확장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1)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번역보도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 연구』, 15(1): 1-27.
- 강지혜 (2008a)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9(2): 7-43.
- (2008b)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번역학연구』 9(4): 7-40.
- 고영근, 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파주: 집문당.
- 김성해, 유용민, 심영섭 (2011)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국제 뉴스 - 온라인 국제뉴스에 대한 국가별 비교연구」, 『언론정보연구』 48(2): 181-222.
- 남재일 (2006)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재관행에 나타난 정권-언론 관계 변화: 청와대 출입기자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50(4): 95-124.
- 박옥수 (2010) 「“삼포 가는 길”의 영어 번역물에 드러난 번역 규범: 기술적 분

- 석에 근거해서」, 『비교문학』 52: 57-88.
- (2012) 「한국 단편소설의 번역에서 드러난 가독성의 규범 - 신경숙의 “그 여자의 이미지” 영역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회』 48: 165-190.
- 박재영 (2006) 「뉴스 평가 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의 뉴스 미디어 2006』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재영, 이완수 (2008) 「역피라미드 구조와 내러티브 스타일에 대한 기자와 에디터의 인식」, 『한국언론학보』 52(6): 123-45.
- 손영준 (2004) 「언론의 구조적 요인이 선거 보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통령 선거 취재기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4): 102-25.
- 신명선, 박재영 (2004) 『신문기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서울: 미디어연구소.
- 안민호, 김택환 (2010) 『신문독자의 특성 및 온라인 뉴스 이용행태』, 서울: 한국신문협회.
- 유선영, 이오현 (2001) 『새로운 신문 기사 스타일: 역피라미드 스타일의 한계와 대안』,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미경 (2011) 「도착언어 독자지식을 고려한 뉴스번역 전략」, 『언어연구』 28(2): 385-404.
- 이상원 (2004) 「출판 번역 비평과 번역 규범」, 『통역과 번역』 6(2): 39-57.
- (2006) 「최근의 번역 비평 서적에서 나타난 번역 평가 규범 분석」, 『통역과 번역』 8(1): 123-41.
- Baskette, Floyd, Jack Sissors and Brian Brooks (1986) *The Art of Editing*, New York: Macmillan.
- Bielsa, Esperan a and Susan Bassnett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New York: Routledge.
- Chen, Yamei (2009) 'Quotation as a key to the investigation of ideological manipulation in news trans-editing in the Taiwanese press',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 daction* 22(2): 203-38.
- (2011) 'The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ts Constraints in News Transediting: a Perspective of Reception Aesthetics', *Meta* 56(10): 119-44.
- Cheng, Wei (2010) 'A Study of News Transediting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 a Case Study of Translated News on Reference News', *Shanghai Journal of Translators for Science and Technology* 3: 27-32.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Fujii, Akiko (1988) *News Translation in Japan*, *Meta* 33(1): 32-37.

Hermans, Teo (1996) 'Norms and the Determination of Transl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in R. Alvarez and M.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Hursti, Kristian (2001) 'An Insider's view on transformation and transfer in international news communication: an English-Finnish perspective', *The Electronic Journal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Retrieved from <http://blogshelsinki.fi/hes-eng/volumes/volume-1-special-issue-on-translation-studies/an-insiders-view-on-transformation-and-transfer-in-international-news-communication-an-english-finnish-perspective-kristian-hursti/>

Kang, Ji-Hae (2007) 'Recontextualization of news discourse: a case study of translation of news discourse on North Korea', *The Translator* 13(2): 219-242.

--- (2010) 'Positioning and Fact Construction in Translation' In M Olohan and M C Perez (Eds), *Text and Context*, London: St Jerome P.

Kim, Youngshin (2003a) Translation of English news headlines into Korean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4(1): 145-66.

--- (2003b) Translator's Mediation in Ideological Issues — a Critical Approach to 'News' Translation,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4(2): 175-90.

Lu, Guang-hui and Yamei Chen (2011) 'The Mediation of Reader Involvement in Soft News Transedit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esearch* 3(2): 48-66.

Reah, Danuta (2002) *The Language of Newspaper*, London/New York: Routledge.

- Rich, Carole (2000) *Writing and Reporting News*, Belmont: Wadsworth P.
- Stetting, Karen (1989) 'Transediting—a New Term for Coping with a Grey Area between Editing and Translating', in G. Caie (ed) *Proceedings from the Fourth Nordic Conference for English Studies*, Copenhagen: U of Copenhagen.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분석기사 목록

- ST: Dispute Over Islands Reflects Japanese Fear of China's Rise
TT: NYT “한-일 영토갈등 美에 불똥” (2012.8.24 동아일보)
- ST: Colorado Gun Laws Remain Lax, Despite Some Changes
TT: 콜로라도주 총기휴대에 매우 관대<NYT> (2012.7.21 연합뉴스)
- ST: Greece Warns of Going Broke as Taxes Dry Up
TT: 그리스 재정, 이르면 7월에 바닥나<NYT> (2012.6.7 뉴스핌)
- ST: JPMorgan Chase Fought Rule on Risky Trading
TT: JP모건, 볼커를 규제 완화 로비<NYT> (2012.05.13 머니투데이)
- ST: A Rockier Pathway to Work
TT: 美연방 직업훈련기금 고갈<NYT> (2010.4.10 서울경제)
- ST: Chain of Avoidable Errors Cited in Koran Burning
TT: NYT 보도 “미군, 쿠란 소각과정은 불운에 판단 실수 겹쳐”(2012.3.5 동아일보)
- ST: An iPhone That's Cheaper, but Fake
TT: NYT “뉴욕서도 짝퉁 아이폰이...” (2012.2.27 서울경제)
- ST: New Normal on Wall Street: Smaller and Restrained
TT: 월街, 실적 황금기는 ‘영원한 과거’로 <NYT> (2012.1.20 연합뉴스)
- ST: A Leading Critic of South Korea's President Is Jailed
TT: <NYT> “정봉주 구속, 한국 표현자유 우려 증폭” (2011.12.27 뷰스앤뉴스)
- ST: In South Korea, Plastic Surgery Comes Out of the Closet
TT: NYT “한국에서 성형수술은 ‘자발적 쇼핑’...날로 적극적” (2011.11.4 경향신문)
- ST: Apple's Lower Prices Are All Part of The Plan

- TT: “애플의 저가정책은 계획의 일부”<NYT> (2011.10.24 연합뉴스)
- ST: Anticipated Amazon Tablet to Take Aim at Apple iPad
- TT: “아마존 등장에 태블릿PC 경쟁 심화”<NYT> (2011.9.26 연합뉴스)
- ST: Libya’s Interim Leadership Releases Its Members’ Names
- TT: “리비아 국가과도위에 극단주의자 없다”<NYT> (2011.8.29 연합뉴스)
- ST: Internet Use Affects Memory, Study Finds
- TT: “인터넷검색 의존이 기억력 저하시킨다”<NYT> (2011.7.15 연합뉴스)
- ST: Despite Risks, Owning a Home Retains Its Allure, Poll Shows .
- TT: “위험하지만 주택 보유가 잘사는 척도”<NYT> (2011.6.30 연합뉴스)
- ST: Risk From Spent Nuclear Reactor Fuel Is Greater in U.S. Than in Japan, Study Says
- TT: “美 사용 후 핵연료 위험, 日보다 심각”<NYT> (2011.5.25 연합뉴스)
- ST: U.S. Groups Helped Nurture Arab Uprisings
- TT: NYT “美 NGO단체 아랍 시위 밑거름” (2011.4.15 국민일보)
- ST: Disruptions of Power and Water Threaten Japan's Economy
- TT: 전기·물 부족이 日 경제에 큰 위협-NYT (2011.3.15 이데일리)
- ST: N Korea suffers, but party keeps grip on power
- TT: 북, 식량난 불구 정권 흔들림 없어 (2011.2.28 연합뉴스)
- ST: At Apple the Platform is the Engine of Growth
- TT: NYT “애플의 강력한 경쟁자는 구글” (2011.1.31 파이낸셜뉴스)
- ST: Yeonpyeong Is Ghost Town After North Korean Attack
- TT: NYT “연평도는 유령 마을..주민들 섬 떠나” (2010.12.5 연합뉴스)
- ST: In the Capital, Rethinking Old Limits On Buildings
- TT: “워싱턴 건물 고도제한 꼭 필요해?”<NYT> (2010.11.5 아시아경제)
- ST: China Said to Expand Rare Earths Embargo to West
- TT: NYT “中, 對 미국·유럽 희토류 수출도 중단” (2010.10.20 아시아투데이)
- ST: Gas Blasts Spur Questions on Oversight
- TT: NYT, “美 가스관 안전감독 부실” (2010.9.25 아시아투데이)
- ST: Carmakers Initiating More Recalls Voluntarily
- TT: 토요타 사태 이후 자발적 리콜 증가-NYT (2010.8.25 머니투데이)
- ST: A Capitalist Enclave in North Korea Survives
- TT: NYT “北, 권력승계 위해 개성공단 유지” (2010.7.8 국민일보)
- ST: Long Road to Adulthood Is Growing Even Longer

TT: “베이비붐 세대 자녀는 피터팬 세대”<NYT> (2010.6.13 연합뉴스)

ST: U.S. Implicates North Korean Leader in Attack

TT: “김정일, 천안함 공격명령 내렸다”-NYT (2010.5.23 아주경제)

ST: Goldman Said to Have Been in Other Mortgage Deals

TT: NYT “골드만삭스, 새 혐의로 제소 위기” (2010.4.27 아시아투데이)

ST: Will China Listen?

TT: 미 NYT, “중국 환율문제 다자무대서 해결해야” (2010.3.18 폴리뉴스)

[Abstract]

Translation Norms of News Trans-editing: A Textual Approach

Song, Yonsuk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dentify the textual norms of news trans-editing, which involves a combination of translation and editing processes. Starting from the discussion of the theories of translation norms and the need for research in this relatively new area, the paper examines a set of the New York Times articles(ST) and their trans-edited versions(TT) selected through modified constructed sampling, with the aim of discovering the textual norms that govern news trans-editing. The paper finds that the articles trans-edited in Korean generally follow the norms commonly operating in news translation, but diverge from it in the structuring of the text and the way the main ideas are presented: translation shifts occurred in more than half of the headlines and all leads, and translation strategies including addition, deletion, change in the order of paragraphs and summarizing were used to better suit the needs of the target readers, to produce rhetorical effects, or to deliver the trans-editor's subjective opinions. The degree and aspects of trans-editors' subjective intervention as well as the meta-discourse structure which characterizes the given text's identity as a (translated) news story suggest that the textual norms of local news-writing may operate in the news trans-editing. Drawing on the findings of the textual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at news trans-editing may have its own translation norms, which cannot be subjected to the conventional adequacy-acceptability criteria.

▶ Key Words: news trans-editing, news translation, translation norm, news structure,
textual norms

송연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겸임교수

yonsuk@gmail.com

관심분야: 뉴스번역, 뉴스편역, 이데올로기, 번역규범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